

## 김혜성, 교체 출전해 타점…'KIA 출신' 라우어, 다저스 이적 후 첫 승

등록 2026.05.27 14:22:02



[로스앤젤레스=AP/뉴스시스]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25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 3회 말 우중간 안타 진루 후 엔리케 에르난데스의 2루타 때 득점하고 있다. 김혜성은 3타수 1안타 2득점 1볼넷을 기록했고, 다저스는 5-3으로 승리했다. 2026.05.26.

[서울=뉴스시스]박윤서 기자 = 김혜성(LA 다저스)이 대수비로 그라운드를 밟은 뒤 타석에서 타점을 올렸다.

김혜성은 27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유니클로필드 옛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 교체 출전해 1타수 무안타 1타점을 작성했다.

김혜성의 시즌 타율은 0.257에서 0.254(114타수 29안타)로 소폭 떨어졌다.

4회까지 8-1로 앞선 다저스는 5회초를 앞두고 엔리케 에르난데스를 대신해 김혜성을 대수비로 투입했다. 김혜성은 2루수로 들어갔고, 2루에 있던 미겔 로하스는 3루로 이동했다.

5회말 타격 기회를 잡은 김혜성은 첫 타석에서 타점을 올렸다.

1사 2, 3루 찬스에서 김혜성은 우완 불펜 잭 아그노스의 시속 95.2마일(약 153.2km) 싱커를 걸어 올려 1타점 희생플라이를 기록했다.

6회말 2사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한 김혜성은 이후 다시 타석에 서진 못했다.

다저스는 무키 베츠와 윌 스미스, 엔리케 에르난데스, 앤디 파헤스의 홈런포를 앞세워 15-6으로 이겼다.

베츠는 1회 2점 홈런과 6회 스리런포를 터트리며 홀로 5타점을 쓸어 담았다.

다저스 1번 지명타자로 출격한 오타니 쇼헤이는 2타수 무안타 1득점의 성적을 냈다.

지난 18일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떠나 다저스로 옮긴 에릭 라우어는 이적 후 첫 경기에서 6이닝 4피안타 1볼넷 4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선발승을 거뒀다. 시즌 2승(5패)째다.

라우어는 2024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에서 뛰며 팀 통합 우승 달성에 힘을 보탤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